



금속노조 호원지회 투쟁 승리

호원 노사 20일, 징계 취소·부당노동행위 금지· 조합활동 보장·차별대우 금지·노동환경개선위 등 합의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가 승리했다. 노조 탄압 중단과 금속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3월 16일 공장 농성에 들어갔던 호원지회가 징계 취소와 조합활동 보장 등을 쟁취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지회는 현장 점거농성 닷새 만인 3월 20일 호원 사측과 ▲노사합의서 3개 조항 ▲특별합의서 1 9개 조항 ▲특별합의서 2 1개 조항에 합의하고 조인했다.

노사합의서 3개 조항은 ▲2020년 1월 이후 발생 모든 징계 취소, 2021년 4월 1일자 원상 회복 ▲부당노동행위 중단, 취업규칙 위반 승진 취소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호원지회와 조합원들 행위 면책, 2021년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발생한 호원지회와 민주노총 조합원들 행위 민사상·형사상 책임 불문 등이다.

특별합의서 1의 9개 조항은 ▲민주노총·금속노조·호원지회 사내·사외 조합활동 보장 ▲상급단

체 사내 출입 시 사전통보 ▲지회 타임오프와 교육시간 제공 ▲지회 사무실 제공 ▲노조탈퇴, 정당한 노조활동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 금지 ▲부당노동행위 확정판결 관리자 징계 ▲지회 조합원 배치전환 등 인사상, 업무상 불이익·차별대우 금지 ▲조합활동 보장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진행 ▲3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연차·결근 조합원들 정상 근로 인정 등이다.

특별합의서 2는 노사 노동환경개선위원회 주 1회 진행 등을 담고 있다.

지회는 3월 20일 오전 10시 조합원 찬반투표로 잠정합의안을 승인

한 뒤, 승리보고 대회를 열었다.

정준현 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투쟁에 나선 호원지회와 투쟁을 지킨 지부 조합원, 3월 19일 긴급하게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조직하고 참석한 전북, 기아자동차지부 동지들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정준현 지부장은 조합원들과 사흘 동안 함께한 김호규 위원장에게 감사 인사도 표했다.

호원 사측은 지난해 1월 금속노조 호원지회가 생기자 금속노조 탈퇴를 회유·압박하며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탄압해 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 4일 호원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양판지, 이제 포기하고 금속노조 인정하라”

지회, 기업노조 직권취소 승리·교섭 요구 ... “지회 탄압하면 금속노조가 응징”

“대양판지주식회사노동조합은 직권취소됐다. 대양판지는 금속노조를 인정하고 2020년 단체교섭에 나와라. 금속노조 인정만이 사측이 주장하는 노사상생의 길이다.”

운상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대양판지지회장이 3월 18일 오후 전남 장성군 대양판지 장성공장에서 연 ‘대양판지 기업노조 직권취소 승리 보고와 2020년 단체교섭 거부 회사 규탄 결의대회’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지회가 3월 4일 광주지방노동청이 기업노조의 노조설립신고 수리 처분을 직권취소하자 교섭대표 노조로서 사측에 2020년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거부하고 있다.

직권취소는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소급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 이에 따라 기업노조가 2020년 교섭 대표로서 체결한 단체협약은 무효이고,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적용할 수 없다.

김호규 위원장은 “대양판지는 자신을 대양그룹이라 부른다. 스스로 그룹이라 부르려면 돈 버는 일에만 나대지 말고, 법과 상식에 기초해 노사관계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최소한의 상식적인 판단을 거부하거나, 다시 금속노조를 탄압하려는 공작을 꾸미는 순간 철저하게 금속노조의 힘으로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회는 2020년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사측을 규탄하며, ‘교섭거부’, ‘현장탄압’, ‘회사노조 부당노동행위’ 상징물을 부수고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결의대회 이후 지회는 사측과 만나 요구를 전달했다. 사측은 법률

자문한 상태고, 그 결과에 따라 의견을 밝히겠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지회는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큰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며 “회사는 탄압정책을 포기하고 2020년 단체교섭에 즉각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회는 노동부에 사측이 즉시 교섭에 나오도록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지회는 사측이 다른 이름의 기업노조를 설립할 움직임이 있는 거로 보고 있다.